

제1장 역사와 환경

1. 머리말

이란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두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예도 드물 것이다.

사실 국호라는 것은 한자문화권(韓國, 日本, 中國)에 서는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 또 중국의 당, 원, 명, 청 등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국호도 달리했다. 그러나 서양이나 중동사에는 이런 전통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확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거주민의 이름이 땅이름이 되어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 이름은 땅이름으로 계속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즉 앵글로 색슨족의 땅, 도이취족의 땅 등이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프간족의 땅, 투르크스탄, 우즈베크스탄인데 이것은 바로 땅 주인을 나타내는 말이 오늘날 국호로 통용되고 있는 예인 것이다.

아리안족(Aryan 이 말에서 Iran이 유래)이 그들의 본고향인 중앙아시아에서 카스피아해 남쪽으로 이주했는데, 그들 가운데 한 부족은 파르사(Parsa)라 불리웠고, 또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를 다른지역 사람들이 파르스(Pars 또는 Fars)라고 부른데서 페르시아라는 말이 유래한 것이다. 이란의 사산조(224~651)시대에는 공식 국호가 이란샤흐르(Iran Shahr)였다. 1935년에 당시의 팔레비조는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보다 포괄적인 이란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란의 공식국어는 페르시아어(Persian Farsi)라 부르고 있다. 이 언어의 명칭이 파르스에서 유래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란은 카스피아해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놓여 있고 국경을 접한 나라는 이라크, 터키, 소련,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이다. 따라서 이 나라는 동쪽으로는 印度와 中國 등과 서쪽으로는 中東 여러나라와 유럽 사이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보면 동서를 연결하는 육교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득한 옛날부터 동서를 잇는 육로와 해상로가 이 나라를 지나게 되어 이 지역

산유국

이란의 연구 ①

-한국의국어대학 중동문제연구소-

이 자료는 최근 외국어대 중동문제연구소가 펴낸 「국가연구: 이란」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註)

에는 많은 상업도시가 나타났다. 경제적 융성으로 그 거주민은 때때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이웃나라를 침범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이웃의 부족이나 영웅호걸들의 침입을 받기도 하여 그 역사는 단절과 연속이 교차되었다. 즉 영광과 고통이 오가는 회비극의 연속이 그 역사의 특징을 이루었던 것이다. 15세기부터 러시아의 융성으로 유럽으로 가는 육로가 다양화되고 또 19세기 말경에 수에즈운하가 개통되자 전통적인 통상요지로서 의 역할은 위축된 것이다.

이란의 국토는 역사의 변천과정에서 확대 또는 축소되었으나, 현재는 164만평방km로서 우리나라 남북한 넓이의 약 8배에 해당된다. 거주민은 이란계의 페르시아족, 발루치, 쿠르드족, 박티아르족을 비롯하여 터어키계의 아제르족 및 아랍족이 있다.

2. 자연환경

(1) 지형

이란의 국토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해발 1,3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속에는 수 많은 산줄기로 얼켜져 있다. 그러나 지형학적으로 보면 4개 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하다.

첫번째 지역은 V자형으로 뻗어나간 자그로스(Zagros) 산맥과 알보르즈(Alborz) 산맥의 움푹들어간 지역이다. 이란의 북서쪽 지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하여 전자는 현재 이라크와의 국경과 대체로 나란히 남동쪽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후자는 카스피아해의 남반을 지나서 동쪽으로 아프가니스탄 국경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 거대한 V자 지역은 산악지대임은 말할것도 없다.

두번째 것은 이 두 산맥 사이에 있는 고원지역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 부차적인 산줄기가 산재해 있으며 V자형의 폭이 넓어지는 곳에서 황량한 사막이 나타나서 남부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까지 계속된다.

세번째 것은 쿠지스탄(Khuzistan) 지역으로서 자그로스산맥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여 평원을 이루어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네번째 것은 알보르즈산맥의 북쪽과 카스피아해의 사이에 있는 해안지역으로서 해발 보다 더 낮은게 특징이고 또 기후가 다른 세 지역과는 차이가 심하다.

특히 강우량이 많아 메마른 다른 세 지역과는 구분된다.

알보르즈와 자그로스산맥이 이란의 국경을 넘어 뻗어나가 있다는 사실은 지형상으로 볼때 이란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뜻은 아니라 현재의 이란국경은 지형적으로 좋은 장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와의 서부 국경과 페르시아만의 남서부 해안지역은 높은 절벽으로 된 바위산맥으로 울타리처럼 둘러 쌓여 있다. 이 산맥의 높이는 평균 2,000m 이상이며 여기서 점차 낮아지면서 이란고원과 연결되어 있다. 북쪽의 카스피아해 연안에도 알보르즈산맥이 동서로 뻗어 이란고원을 막아주고 있으며 북동부와 동부 국경선 근처에도 높은 산이나 황량한 사막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서 중심부인 이란고원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水資源

이란의 강과 냇물은 대체로 위에서 언급한 네 지형에 따라 카스피아해, 우룸미예(Urmiya 혹은 Rezaieh) 호수, 페르시아만 및 거대한 사막의 분지로 흐른다. 카스피아해로 흐르는 강으로는 아르스(Aras 혹은 Araxes)와 세피드(Sefid)가 있는데, 후자는 많은 지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강들은 봄철이 지나면 물의 양이 적은 편이다.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강의 지류에 해당하는 카룬(Karun)이 있을 뿐이다. 이 강은 또 페르시아만의 북서쪽에 있으며 물의 양도 풍부하여 작은 기선은 강어구에서 약 110km 떨어진 아흐와즈(Ahwaz)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작은 목선은 그 이상의 상류에 까지 운행된다. 이 도시에서 강의 폭은 약 90m 정도이다.

내륙에 있는 사막의 분지로 들어가는 강의 수는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 힘들다. 그 가운데 큰 것은 이스파한(Isfahan)을 가로 질러 흘러가는 자이안데(Zayandeh), 테헤란 근처의 자지루드(Jajirud), 카레즈(Karej), 칸드(Kand), 함단(Hamdan) 근처의 카라수(Qarasu), 카산(Kashan) 동쪽의 하블레(Hableh), 콤(Qom) 근처의 쿠르(Kur)강 등이다. 그보다 훨씬 동쪽에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선을 가로 질러 흐르는 헬만드(Helmand)강이 대표적이다. 이 강들은 사철 내내 물이 흐르나 다른 나머지 강들은 여름에 말라 버린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인 카스피아해는 해발보다 약 30m 낮은 편이고, 점차 그 깊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그 넓이도 매우 완만하지만 줄어 들고 있다. 또 소금기는 대양의 바다물 보다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란쪽의 해안은 완만하여 천연적으로 좋은 항구도 없고 폭풍이 심하여 작은 목선의 운항에는 위험스럽다. 그러나 해산물은 풍부하다.

아제르바이잔주에 있는 우루미야호수는 길이가 약 130km, 폭이 약 56km이고 깊이는 평균 5m 정도이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약 10m이다. 이곳으로 흐르는 강들은 몇개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적지만, 강물에 따라 들어오는 흙으로 호수는 점차 작아지고 있다. 또 물속의 소금기와 황산기가 짙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수량이 감소되어 여름철에는 호수의 중앙에 있는 섬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이다.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에는 여러 개의 늪이 있는데, 계절 따라 그 규모가 확장 또는 축소되기도 한다. 이란의 호수들은 대부분이 소금기가 많은 편이어서 순수한 민물의 호수는 거의 없는 편이고, 여름철의 건조기에는 연못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토양과 풍토

이란의 거대한 사막지역은 테헤란과 콤시의 근처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0km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넘어 뻗어 나가고 있다. 이 사막의 넓이는 이란 전 국토의 약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광대하다.

이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사막이 셋이나 되는데, 즉 다쉬트-에 루트(Dasht-e Lut), 다쉬트-에 카비르(Dasht-e Kavir) 및 자즈 무리안(Jaz murian)이다. 이 사막 속에는 소금물 호수가 있어서 봄철의 우기에는 강물이 몰려오나 여름철에는 메말라버려 그 표면에는 소금으로 덮힌 지각이 생겨난다. 이 사막속에는 오아시스 등도 있어서 정원, 과수원 또는 야자수숲을 이루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타바스(Tabas)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이 사막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극히 힘들었다. 특히 심난(Simnan)에서 케르만(Kerman)까지는 상파라쉬(Sang Farash 바위웅단)구역이 있는데, 길이가 약 30km, 폭이 약 120m이다.

이란의 강수량은 그 대부분이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

을 받아 11월에서 4월까지 내리나 여름철에는 거의 폭풍우가 오지 않으며 가끔 소나기가 가볍게 내릴 뿐이다. 이란 국토의 중심부를 이루는 이란고원의 연평균 강수량은 30mm 정도로 극히 낮은 편이며, 사막지역은 12mm 정도이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서쪽은 강수량이 연평균 38mm에서 89mm 정도 내려 수분흡수율이 낮은 농작물이 경작된다. 그러나 때때로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범람하여 농작물과 도로에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알보르즈산맥의 북쪽 카스피아해안은 그 사정이 너무나 편이하다. 이곳에는 일년 내내 비가 내리고 강수량도 연평균 100mm에서 150mm 정도가 되므로 산천초목이 항상 푸르고 늪이나 물이 축축한 수풀구역도 상당히 있어 열병의 근원지가 될 정도이다.

이란의 강수량에 버금가는 수자원은 강설량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알보르즈와 자그로스산맥의 높은 능선과 계곡에는 많은 양의 눈이 덮혀 여름 내내 녹아 내린다. 이 물은 경작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지스탄주의 북쪽에 있는 안디메쉬크(Andimeshk), 쉬라즈, 야즈드 및 아프가니스탄 국경 부근의 카엔(Qaen)을 연결하는 선 이남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테헤란에서 카스피아해 사이 산악에는 상당한 양의 눈이 덮혀 2, 3개월동안 통행이 끊겨질 경우도 허다하다.

이란 고원의 기후는 겨울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매우 덥다. 테헤란의 경우에는 여름에 낮온도는 몇주일간 섭씨 37° 또는 38°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더우나 밤에는 한결 신선한 편이다. 또 습도는 20도 정도일 따름이다. 겨울의 최저온도는 영하 10도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며, 낮 동안의 최고온도는 0도 이상이 보통이다. 후라산과 아제르바이잔지역은 여름에 훨씬 시원하나 겨울에는 더욱 추운 편이다.

반면에 페르시아만의 해안지역과 남서부의 사막지역의 기온은 열대성이어서 섭씨 50도 이상을 기록할 정도이다. 이 해안지역의 윗쪽은 습도가 짙어서 매우 무덥다. 카스피아 해안지역은 일년내내 온화하거나 더운 편이고, 강수량이 가장 많은 1월에는 습도가 90도 정도이나 7월에는 75도 정도이다.

계절의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 겨울철에 내린 비로 봄과 함께 산과 들이 초록으로 변하여 꽃이 만발하나 여름에는 모두 말라 죽어버린다. 가을은 거의 없을 정

도여서 여름에서 바로 겨울이 성큼 다가 올 정도로 기후는 급격히 변한다. 일년 가운데 반 이상은 청명하며 약 50일 가량 폭풍과 구름이 덮힌다. 심한 바람도 불어 먼지를 일으킨다. 남동부 이란의 여름에는 시속 97 km 정도의 강풍이 불어오므로 농부들은 풍차를 이용하여 수확한 밀을 갈고 있다.

이란의 농부들은 더위보다 추위를 더 무서워한다. 겨울에는 통행의 제한을 받게되므로 식품을 비축해야 한다. 더구나 중앙난방시설이 농가에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보온을 위해서 대체로 남향집을 짓는다. 집안을 덥히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탁자 속에 화로(Kursi)를 넣어두고 그 위를 3, 4m의 이불을 덮어 겨울을 나고 있다. 화로에는 주로 목탄을 사용한다.

3. 歷 史

(1) 원주민

이란족이 기원전 1200년경에 이주하기 전에 이란고원에 살았던 원주민에 관한 오늘날의 지식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러나 원주민에 관한 유물과 유적은 여러곳에서 발굴되고 있다. 특히 11000년전의 석기물이 카스피아해의 남쪽 연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동부의 케르만(Kerman)과 반다르 압바스(Bander Abbas) 근방과 서부의 케르만 샤(Kerman Shah) 근방 및 남서부지역의 유물은 각각 9000년전에서 6500년전에 만들어진 유물로 추정된다. 이 유물들은 모두 석기로 된 것이어서 구석기 내지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서부지역에는 서기 기원전 3000년경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와 토器 등도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주민이 이란고원과 그 인근에 살았다는 사실은 확실하나 그들의 언어와 인종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란고원의 북서부에는 만나이족(mannai 즉 mannaeans)이, 또 남부에는 현재 후지스탄(Khuzistan)을 중심으로 엘람족(Elamites)이 살았다고만 확인될 뿐이고 이들은 철제무기를 사용하는 이란족의 침입으로 정복된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2) 이란족의 제국건설(1200B.C~A.D640)

이란족은 印度·유럽語族의 한 분파로서 그들과 가

장 가까운 어족은 인도족이다. 印度·유럽어족이 그들의 고향인 카스피아해의 북쪽 볼가강에서 언제 각각 인도와 이란에 정착했으며, 또 언제 갈라졌는지는 아직 추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원전 1000년에 이미 인도족과 이란족은 헤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아리안족(Aryan, 군주의 뜻으로 추정)이라 불렀다. 기원전 1300년에 북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한 미타니(mittani B.C 1530년경~1350) 국가의 상층부는 이란족으로 보고 있고, 또 이 나라는 기원전 1300년경에 앓시리아족(Assyrians)에 망한 것으로 볼때 이란족의 일부는 그 이전에 이미 중근동에 이주한 것으로 상상된다. 이란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부족이 페르시아족(Persians, Parsa)과 메데족(medes, mada)이다. 이 두 부족은 코오카사스반도를 통하여 북쪽에서 이란으로 들어온 반면에 다른 이란계 부족들은 중앙아시아를 통하여 북동쪽에서 이란고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믿고 있다. 메데족과 페르시아족은 그들의 정착지인 메디아(media 현 북서쪽 이란)과 파르스(Fars, 현 이란 남서쪽)에 각각 기원전 900년과 700년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정복당했으며, 또 왜 정복자의 언어와 풍속에 동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며 또 정복자들이 세운 메디아가 아케메니드(Achaemenid, Hakhamanish) 왕국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메디아는 기원전 7세기경에 국운이 융성했으며, 또 앓시리아 정부체제와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典據와 물증은 약하다. 당시 메디아의 속국으로 있던 페르시아족은 부족장 시루스(Cyrus)의 지도 아래서 반란을 일으켜 메디아를 기원전 549년에 멸망시키니 곧 세계사에 페르시아제국이 등장한 시점이 되는 것이다. 그는 왕중왕(Shahanshah)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그 위력을 과시했다. 아케메니드제국의 국경은 융성기에는 이집트를 포함한 오늘날 남서아시아지역(아라비아반도 제외) 모두를 석권했다.

이 제국의 특색은 세계국가란 개념위에 바탕을 두고 군사력의 광영과 법치를 강조한데 있다. 따라서 다리우스 I세(Darius B.C 552~486 재위)는 제국의 영토 전역에 통용되는 금화를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여 상업활동을 장려했다. 특히 사르디스(Sardis)에서 수사(Susa)

에 이르는 王道와 우편제도는 유명하다. 또 조로아스터 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다른 종교도 관용했다. 여러 다른 인종이 영토내에서 페르시아식의 평화라는 한지붕 아래서 살았으며, 겨울철 서울인 수사와 여름철 서울인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의 궁전에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했다. 그 결과 이 제국의 건축물과 조각품은 여러 다른 기원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 뚜렷하며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나타난 알렉산더(Alexander)대왕의 원정에 이 제국은 기원전 333년에 망한 후 이란은 그리스족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사망하자 그의 예하 장군들 사이에 영토분할전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란은 셀루시드朝(Seleucids B.C 312~64)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이 왕조의 관심이 시리아쪽에 기울어져 이란지역을 등한시 하자 기원전 247년에 파티아朝(Parthia, B.C247~A.D224)가 등장하여 동부이란을 차지하자 이란족은 부분적으로 그리스족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 후 파티아조의 실질적 창립자인 미트라다테스 I(Mithridates B.C171~138)는 서부이란과 메소포타미아를 셀루시드조에서 빼앗아 이란은 다시 옛날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미트라다테스 II세(B.C123~87)는 아케메니드조의 칭호인 「왕중왕」으로 자처하여 鑄貨에 새기니 곧 이란 왕조의 전통이 되었다.

한편 기원전 50년경부터 로마제국이 중근동에 발판을 만들자 이때부터 약 700년간 중근동은 동서양의 대결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파티아제국과 로마제국, 그 후는 이란의 사산제국(224~651)과 비잔틴제국(~ 1453)의 대결로 이어졌다. 파티아는 500년 남짓 존속했지만 그 사료는 주로 로마제국의 것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이 나라의 공식 국명도 그들 자신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를 지경이다. 비록 이 나라는 기원전 249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형태는 자신들의 문서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역대 제왕들은 매장되었다고 전하나 그 무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왕국의 중요도시는 다라(Dara), 현 소련령인 중앙아시아 아쉬카바드(Ashkhabad) 부근의 니사(Nisa), 그리스 이름으로 알려진 현 담간(Damghan) 근처의 헤카토포로스(Hecatomphlos)

및 수도인 크테시폰(Ctesiphon)이다. 수도는 셀루시드朝가 세운 이라크의 셀루시아(Seleucia)의 반대편 강변에 세워져 그것을 능가한 흔적이 보인다.

서기 200년대에 들어와서 파티아의 파르스(Fars)주 통치자인 영주 아르다쉬르(Ardashir)는 세력을 얻어 영토를 팽창시켰다. 결국 파티아국의 최후황제를 224년에 폐퇴시키고 사산朝(224~651)를 세웠다. 그의 아들 샤푸르(Shapur I 241~272재위)는 서쪽의 로마제국과 동부지역을 정복하여 아케메디드제국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였다.

사산제국은 이전의 제국들보다 더욱 중앙집권화되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사회 각층은 계급으로 고정화되었다. 지방의 군소군왕은 중앙의 집권자가 허약할 때는 독자성을 누렸으나 점차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총독과 관리로 대체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승려층도 국가행정 조직에 따라서 버금가게끔 계층(hierarchy)화 되었다. 그리스도교와 마니교(manichaeism)도 관용되었으나, 후자는 때때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호스라우(Khosrau I 531~579 재위)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여 토지와 개인에게 각각 부과했다. 이 세제는 후에 아랍무슬림이 모방하여 하라즈(Kharaj 토지세)와 지즈야(jizya 인두세)가 되었다. 관료조직도 개편하여 귀족층은 점차 왕실과 밀착되어야만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하급귀족층인 데칸(dehqan)의 수와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황제의 위신은 더욱 상승하여 제국은 다음 1세기간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세기 전반기에 들어와 사산왕조는 계승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고 또 비잔틴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우스(Heraclius 610~642 재위)의 침입으로 위기에 들어갔다. 이 찰나에 아라비아반도에서 일어난 아랍이슬람제국의 침입을 받아 637년 카디시야(Qadisiya)에서 이란군이 대패하였다. 그 여파로 사산조는 몰락했다. 사산제국과 비잔틴제국은 수백년간 대결한 결과 그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아랍군은 이슬람의 종교적 열정으로 그 기세가 상승하였다. 더구나 아랍정복시의 세금부과율은 사산조의 그것보다 훨씬 가벼웠으므로 이란의 주민들은 침략자들에 대한 저항이 미온적이었다. 아랍무슬림의 통치 아래서 이란인들은 이슬람문화와 종교에 감화되어 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3) 이슬람의 등장과 이란족의 쉬아 이슬람화 (A.D 640~1919)

카디시아에서 승리한 아랍무슬림 군대는 곧 사산조의 수도 크테시폰(al-madaim)을 함락시킴으로써 이라크의 정복을 완료했다. 그 후 사산조 최후의 황제 야즈디기르드(Yazdigird III)는 642년 하마단(Hamadan) 남쪽의 니하반드(Nihavand)에서 저항했으나, 다시 패하여 중앙아시아의 옥수스(Oxus)강으로 도망했으나 자신의 부하에게 651년에 살해되었고, 그 후 이란은 정복자의 먹이가 되었다.

아랍무슬림의 이란 정복은 이란 역사의 단절을 의미한다. 아랍족의 종교 이슬람은 이란족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몰아내었고, 아랍어도 이란의 문화언어로 수백년간 군림한 결과 오늘날의 페르시아어에도 아랍어 어휘가 대거 차용되어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역할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이슬람의 평등정신과 할리파位(Caliphate)의 선임제도는 페르시아의 전통적 절대군주제와 이란인의 의식구조 속에 혼합되었다. 그 후 이란의 정치질서는 이란적 전통과 이슬람적 정신이 지속성과 단절성이 교차되면서 융합되어 왔다.

이슬람제국에 병합된 이란은 명목상으로는 먼저 우마이야朝(Umayyā 661~750) 그 다음은 압바시아朝(ʿAbbāsīyyā 750~1258)의 한 부분으로 거의 6세기간 아랍무슬림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9세기에 들어와서 이란족의 정치적 각성을 통하여 후라산(Khurasan) 주에 타히리朝(820~873), 중앙아시아에 사만朝(819~1005)를 세웠고 그 후에는 이란화 된 터키계의 가즈나朝(977~1186)가 수립되어 후라산, 아프가니스탄 및 북부 인도를 통치했다. 또한 시지스탄(Sisistan) 주에서는 민중봉기로 사파리朝(Saffari 867~913)가 성립되었고 길란(gilan) 주에 일어난 부와이흐朝(Buwaiḥ 945~1055)는 945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하여 서부이란과 이라크를 통치하여 그곳의 압바시아朝의 할리파를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지방왕조들은 관할지역 내에서는 실질적 통치자였으나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명목상으로 압바시아조의 할리파를 종교지도자로 인정하였다.

이란은 동서대륙의 육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1055년에 중앙아시아에

서 셀주크 터키족이 이란 전역을 석권하고 바그다드를 점령하니 곧 부와이흐조의 종말이다. 셀주크朝(Seljuq 1038~1194)는 중앙아시아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으나, 1092년에 유능한 통치자 말리크샤(malik Shah 1072~1092 재위)가 죽은 후 그 영토는 군소왕국으로 나뉘어졌다. 동부 이란에는 셀주크조의 한 총독이 호와리즘(Khwarizm) 국가를 건설하여 1세기 동안 존속했으나, 1219년 징기스 칸(Genghis Khan)이 이끄는 몽고군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고, 곧 이어 그의 손자 훌라구(Hulagu)는 바그다드까지 쳐들어와서 압바시아 조조를 없애고 일한(Il-Khan)국을 세웠다. 일한국의 수도는 이란의 북서지역인 타브리즈에 두었으며, 그 영토는 이란, 이라크, 소아시아반도 및 코오카서스반도에 걸쳤다. 그의 후손인 가잔 칸(Ghazan Khan 1295~1304 재위)은 이슬람에 개종하였으며, 그 후 원나라 황제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7세기 전반부터 14세기 중엽에 이르는 장기간의 외국인 통치 아래서도 이란인은 고유 문화적 전통을 유지했다. 때때로 그들은 야만적인 유목민 출신의 통치자들을 이란 문화에 물들게 하여 순화시키기도 했다. 이 문화적 전통을 계승 유지시킨 세력은 행정관료들이었다. 외국의 정복자들은 막강한 군사력은 가지고 있었으나, 통치술에 미숙하였으므로 평화시의 행정체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란의 행정관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란의 고유한 전통성을 지키고 또 아랍통치자와의 융화를 위해서 이란인들은 12이맘파 시아이슬람에 개종했다. 대다수의 아랍무슬람이 추종하는 정통 순니이슬람에 대립되는 이 양식의 이슬람은 비록 그 기원은 아랍소수파에 두고 있지만, 이란인들의 개종으로 그 색채는 어느 정도 이란화 되었다. 특히 시아파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이며 사위인 4대 할리파 알리('Ali 656~661 재위)와 그 후손들에 애착심을 두고 있는데, 이란인들의 개종은 알리의 아들 후세인(Husain)이 사산조의 마지막 황제인 야즈디기르드의 딸과 결혼했다는 믿음에서 촉진된 것이다. 더구나 후세인은 우마이야조의 할리파 야지드(Yazid 680~83)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 당하자 그는 시아운동의 순교자가 된 것이다. 이 죽음은 오늘날까지 이란에서 기념되고 있으며, 또 그의 제사날에는 격정에 휩싸인 수많은 행렬이 이란 곳곳에

서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시아이슬람은 종교란 옷을 입고 나온 이란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향의운동으로 볼 수 있다. 7세기 후반부터 권력장악에 야망을 품은 이란인들은 이란의 민족감정을 불러 일으켜 기존 지배층을 전복하기 위해 이 시아운동을 그 수단으로 흔히 사용했다.

1335년에 일한제국이 허물어지자 이란은 또 다시 소수의 여러 왕조아래 분열되었으나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티무르(Timur)의 통치아래 14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통일되었다. 그러나 1405년에 티무르가 죽자 그의 왕국은 서부이란에서 쇠퇴하였으며, 이 지역은 다시 투르크만(Turcoman) 부족의 흑양조(Qara Qoyunlu 1380~1468)와 백양조(Aq Qoyunlu 1378~1508)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티무르조(1370~1506)는 수도 헤라트(Herat)를 중심으로 동부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통치했다.

1500년경에 사파위朝(Safawi 1500~1736)가 등장하여 이란고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쳐 다시 이란을 통일했다. 이 왕조는 두가지 점에서 현 이란의 모태로 볼 수 있다. 즉 비록 이 왕조의 창시자 이스마일(Ismail 1500~1524)의 가문은 이란계로 여기고 있으나, 그의 추종자들은 대부분이 투르크만부족이었고, 또 그 자신들도 터키계 언어인 아제리(Azeri)를 사용했다고 한다. 시아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이 왕조 아래서 그때까지 과반수 이상이 순니이슬람을 따랐던 이란인들을 대체로 통일하였고, 또 그들은 시아파이슬람에 대거 개종했다. 그 결과 이란의 거주민은 이란계 또는 터키계이든지 관계없이 90% 이상의 절대 다수가 시아가 되어서 현대적 의미의 동질적 민족국가(national state)로 발전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근동 이슬람세계는 순니파의 오스만터키와 시아파의 사파위이단으로 양분되어 그 자웅을 다투게 된 것이다.

한동안 위력을 떨치던 이 왕조도 1722년 아프간족의 침입을 받아 수도 이스파한이 점령당했으나, 북부와 서부 이란은 건재했다. 아프간군은 7년간에 걸친 아프간군의 이스파한 점령 기간중 압사르(Afsar) 부족장 나디르 한(Nadir Khan) 이란 영웅이 나타나 침략군을 물리치고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다. 1736년에 그는 명목상의 마지막 사파위 국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나디르 샤(shah)라 칭하면서 왕위에 올랐다. 그는 1739년

에 印度의 델리를 점령하여 꺾여졌던 이란의 국위를 회복했으나, 1747년에 암살당했다. 그 후 이란은 남쪽에는 잔드朝(Zand), 북쪽에는 카자르(Qazar)부족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약 50년간 분열되었다.

그 후 카자르부족 세력이 크게 부상되어 잔드조를 멸망시키고 이란을 통일하니 곧 카자르朝의 시작이다. 이 왕조는 1795년에서 1925년까지 존속했다. 이 기간은 유럽열강의 동침(東侵)시기였으므로 이란도 그 화를 피할 수 없었다. 특히 英國과 러시아는 각각 이란의 남북쪽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침투했다. 러시아는 1800년에 코카서스의 그루지아(Georgia)를 병합했고, 굴리스탄(1813)과 투르크만차이(1828) 조약을 체결하여 풍요한 이란의 코오카서스 지역을 빼앗아갔다. 또 한편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도 확장정책을 추구하여 1884년에는 메르브(meru) 지역까지를 밀고 들어오니 이란의 영토는 크게 위축되었다.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이고 또 부패무능한 카자르조에 항의하여 1844년에 밥(Baf)운동이 일어나 새로운 종교인 바하이교(Bahatism)가 생겼다. 또 英國의 경제적 침투에 대한 저항으로 1890년에는 시아파의 지도적 종교인들은 英國독점 담배회사의 보이코트운동을 전개하여 전국민의 호응을 얻으니 이란 정부는 이 회사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용기를 얻은 종교지도자들은 곧 헌법제정운동을 전개하여 1906년 8월에 국왕의 허락을 얻었고, 10월에 시행된 제헌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여 의회에 대거 진출했다. 곧 제정된 헌법을 재가하고 국왕이 사망했다. 곧 무하마드 알리 샤(Mohammad 'Ali Shah 1907~1909)가 왕위에 오르자 헌법을 무시했고 1908년 6월에는 의회를 폐쇄했다. 이에 분개한 헌법주의자들은 1909년에 국왕의 폐위를 외치고 일어나자 양위하고 러시아로 망명했다. 그러나 1911년에 이 국왕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침입했으나, 헌법주의자들에 패하여 다시 망명했다. 그러나 미국인 재정담당관 슈스터(morgan Shuster)의 해임을 러시아는 1907년에 영국과 맺은 영로협정에 따라서 강력히 요구했고, 헌법주의자들도 의회운영의 경험이 부족하여 서로 분쟁을 일삼아 결국 1911년 12월에 해산되었다. 그후 1914년 11월에 의회는 재소집 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4) 이란의 근대화(1919~현재)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제정러시아는 1917년의 공산 혁명으로 무너지고 대신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등장하여 이란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 결과 이란은 英國의 일방적 간섭만 받게 되었으므로 명목상 독립은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호국화 되었다. 이 사실은 英國과 이란이 1919년에 맺은 비밀협정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즉 英國은 관세혜택, 중요부서에 고문배치, 군조직의 재정비권 및 철도부설권을 받았으며 그 댓가로 이란측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이 비밀이 폭로되자 英國은 차관을 중단하니 이란정부는 공무원의 급여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내각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정국은 혼미한 상태에서 유일한 조직세력인 코사크사단이 192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 부대의 사령관 레자 한(Reza Khan)은 1923년 10월에 국왕을 강요하여 수상직에 취임하니 국왕은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레자 한 내각의 새로운 의회는 1925년 10월에 망명중인 국왕을 폐위시키고 레자 한을 국왕으로 추대하니 이가 곧 레자 샤(Reza Shah 1925~41 재위)이며 또 팔레비朝(Pahlavi 1925~79)의 시작이다. 이 왕조와 함께 이란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레자 샤의 근대화정책에는 종래까지 특권을 누려오던 올라마층의 억압을 먼저 꼽을 수 있다. 그는 이슬람聖院의 소유지를 제한하고 나머지를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이 계층의 수입원을 봉쇄하고 국가의 세입을 늘렸다. 그는 이슬람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으나 성직자들의 활동을 제약했다. 또 학생들을 선발하여 해외유학을 보냈으며 여성의 지위를 개선했다. 즉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Chador)을 폐지하였고 결혼과 이혼법을 제정하였으며, 많은 학교를 세워 서구식교육을 보급하는데 전념했다. 즉 나폴레옹법전을 본따서 헌법, 민법 및 상법을 제정하고 신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종래까지 사법부와 교육을 전담해온 올라마들의 설 땅은 그만큼 좁아졌다. 더구나 외국인이 누렸던 치외법권을 1928년에 폐지하고, 외국상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은 그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의 치적으로 높이 꼽

히는 것은 약 100년간의 혼란 끝에 처음으로 이란 전역을 중앙정부의 통치 아래 두게 한 행정체계의 확립이다. 그의 성공은 石油의 발견으로 英-이란석유회사(Anglo-Iranian Oil Company)가 설립되어 일정한 석유세입이 보장되어 국가재정이 안정된 데서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대약점은 왕조를 설립 보존하려는 야망에 있었다. 그 결과 재력과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와 기업 등 중요한 재원을 왕실이 소유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낳게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레자 샤의 이란 정부는 중립을 취했다. 그러나 독일군이 동부와 남서부 소련 땅을 점령하여 이란국경에 접근해 가자 美國과 英國의 소련에 대한 보급로 확보는 시급했다. 즉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이란을 거치는 육로는 연합군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급로였다. 레자 샤가 중립을 이유로 연합군 측의 보급로 사용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1941년 8월에 英國과 소련군이 이란을 남북으로 공격하니 그는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에게 9월에 양위하고 망명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파로 왕의 권위는 약화되었으며, 그 대신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전후에는 민족주의 세력이 급성장하여 오다 1951년 민족주의자 모하마드 모사데그(Mohammad Mossadeg)가 수상이 되자 곧 英-이란석유회사를 국유화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는 그가 이끄는 민족전선당의 이란 정부와 영·미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국왕과 수상 사이의 마찰이 심화되어 갔다. 1953년 8월 수상파는 국왕의 출국을 강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며칠뒤 美國의 지원을 받은 왕당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주의자를 축출하고 국왕의 귀국을 실현했다. 그와 함께 의회는 다시 악화되고 왕권은 다시 강화되어 갔다. 왕위를 굳건히 보전하기 위해서 국왕은 서방측과 더욱 밀착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바그다드조약에 가입하여 반공노선을 대외정책으로 내세웠다. 또한 국내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1964년에는 백색혁명이란 이름 아래서 토지개혁, 문맹퇴치, 공업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주와 성직자들이 피해를 보자 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종교세력을 대변하여 호메이니는 같은 해 美-이란 행정협정의 부당함을 역설하여 국왕을 규탄하자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아 대중적 봉기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민중봉기가 정부

의 탄압으로 실패하자 호메이니는 망명의 길을 떠났다.

그 후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국왕은 공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농업노동자와 소농을 도시로 몰아내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니 도시의 빈민가는 더욱 늘어났다. 더구나 1973년 10월의 제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석유가가 급등하자 국고세입은 크게 팽창하고 국왕정부의 공업화세력은 더욱 급격히 진행되었다. 동시에 빈부의 격차는 넓어지고 민중의 원성은 높아가고 그 대응책으로 반대파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서 군과 비밀경찰의 수는 더욱 증대되었고, 그와 함께 관료의 부패는 극심되자 1978년초부터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反팔레비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민중적 항쟁으로 1979년초 팔레비정권이 무너지고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 외세를 업고 있는 정권을 민권으로 뒤엎은 최초의 민중혁명이었다. 이 혁명은 이슬람 정치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슬람혁명이라 불리웠고 국가체제도 神政이었다.

더구나 이 혁명으로 이란 국내가 극도로 혼란했고 또 주변의 보수적 무슬림국가의 정권은 혁명의 자국내 파급을 두려워했다. 이 기회를 포착하여 아랍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라크는 혁명의 파급을 저지하고 페르시아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1980년 9월에 이란을 공격하니 곧 이란-이라크전쟁의 시작이다.

이 전쟁은 아랍민족주의와 이란의 범이슬람주의의 이념대립과 강대국의 이해가 상반되어 1988년 여름까지 만 8년간이나 지루하게 끌어온 것이다. 그 결과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극심했으며 또 양국의 산업생산은 격감되었고, 실업자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휴전 후 이란은 10년 동안 후퇴한 거대한 경제를 성장으로 이끄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이다.

4. 인종·언어 및 인구분포

이란은 인종적으로 볼 때 단일민족국가라기 보다 전 근대적 복합민족국가이지만 여러 종족간의 혼혈로 인하여 통계를 내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1930년대초에 오랫동안 페르시아로 알려진 국호

를 이란으로 바꾼 이유는 그 거주민의 절대다수가 인도-유럽인종이란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페르시아인도 여러 인종과의 혼혈의 결과이다. 印度-유럽계의 인종(70%) 외에도 터키계(25%)와 아랍계의(5%) 종족이 살고 있다. 印度-유럽계에는 페르시아인(전 인구의 50%), 쿠르드인(Kurds, 5%), 루르인(Lurs, 5%), 박티야르인(Bakhtiyars) 및 발로치인(Balochis)이 있으며 또 코코카서스계의 아르메니아인, 그루지아인(Georgians)등이 극소수파로 잔존하여 있다. 페르시아인은 테헤란, 이스파한, 쉬라즈 및 마샤드 등의 대도시가 있는 이란고원 지역과 후라산(Khurasan) 州에 주로 살고 있으며, 이란의 국어인 파르시(Farsi, Persian)어를 사용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이란, 이라크 및 터키와의 국경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반유목민 생활을 하며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들의 언어는 쿠르드어이다. 이 민족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를 이슬람혁명 전과 후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때때로 무장투쟁도 벌이고 있다. 서부 산악지대에는 루르족도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케르만 사(Kerman)의 남쪽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이들은 印度-유럽계의 아리아 인종 가운데 가장 먼저 이란고원에 들어왔으나, 페르시아인에게 밀려 이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과 밀접한 혈연관계에 있는 종족이 박티야르족인데 주로 이스파한의 서쪽 자고로스(Zagoros)산맥에 거주하고 있으며, 반은 정착되어 있고 반은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이 두 종족은 페르시아어에게 속하는 루리(Luri)어를 사용하고 있다. 쿠르드, 루르 및 박티야르족의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인종의 여인들 보다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여인들은 베일(Chador)을 쓰지않고 남성들과도 동행할 수 있으며, 격리되어 있지 않다. 발로치족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역인 동부이란의 사막에 거주하고 있으며, 말을 잘 다루기로 유명하며 발루치어를 사용하고 있다.

터키계종족으로는 아제리(Azeris)인, 투르코만(Turcoman) 및 카쉬카이(Qashqai's)인 등이 있는데, 이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계종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6세기경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소아시아 반도로 이동하면서 이란의 전역 또는 한 부분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아제리족은 거의 천만(1988

년 추정, 전체인구 약 5천만)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이란의 북서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주에 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이란계와 혼혈이 대부분이다. 카쉬카이족은 여름철에는 시라즈와 이스파한 사이의 고지에, 겨울철에는 쉬라즈의 북서부와 동부의 低地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이나 요즈음은 정착자의 수가 늘고 있다. 투르코만족은 후라산주에서 주로 농경생활에 종사하고 있고 이 두 종족은 고유의 터키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셈(Sem)계에 속하는 아랍인, 유대인 및 앗시리아(Assyrians)인도 살고 있다. 아랍인은 주로 페르시아만의 여러 섬과 후지스탄(Khuzistan)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랍어를 모어로 하고 있다. 유대인은 극소수로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앗시리아인은 북서쪽에 거주하나 그 수는 수만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드라비다(Dravidan)계의 브라후이(Brahui)족과 몽고계의 아프간하자라(Afghan Hazaras)족이 극소수이지만 거주하고 있다. 종족간의 혼혈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언어간의 혼합도 나타났다. 특히 이란이 7세기경에 아랍무슬림에 정복 당한 후 이란계 민족은 이슬람에 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페르시아어의 철자는 9세기부터 아랍어 철자를 조금 수정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아랍어 어휘가 대량 페르시아어에 들어왔다. 이 현상은 쿠르드어, 아제리어, 루리어 및 발루치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일어났다.

이란의 인구는 1979년의 이슬람혁명과 잇따라 일어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최신의 것은 신빙하기 어렵다. 1956년의 인구조사에는 18,945,000명, 1966년에는 25,789,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약 15,400,000)가 25세 이하였고, 35%(약 8,750,000)가 25세 이상 65세 이하였으며 65세 이상은 5% 미만(약 970,000)으로 나타났다. 당시 출생률은 1,000명당 43명인데 반하여 사망률은 1,000명당 14명이었다. 1978년에는 35,500,000만 1986년에는 48,181,000명으로 추정했다. 즉 평방km 당 28명의 인구밀도를 보인다. 이때의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1.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테헤란시에는 총인구의 13%가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쟁으로 많은 피난민이 대도시 특히 수도 테헤란에 밀려왔으므로 그 비율은 더욱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의 인구 증가율은 연 2.97%로 추정하고 있다.

5. 종교와 윤리

인종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약 91%)이란 거주민의 신앙은 열두이맘파(Ithna 'Ashariya) 시아이슬람이다. 그외에도 정통파 무슬림(Sunni Islam, 약 8%)과 기타 1% 미만의 종교적 소수파 즉 아르메니아인은 아르메니아 그리스도교도, 앗시리아인은 네스토리야 그리스도교(Nestorians), 고대 이란의 고유종교인 조로아스터(Zoroastrians)교도 및 시아이슬람에서 파생되었으나 이단으로 취급받는 바하이교(Bahatism)와 알라위(Alawi)의 추종자도 있다. 조로아스터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을 숭상한다 하여 拜火敎로 알려져 있다.

열두 이맘파 시아이슬람은 사파위조 시대에 국교가 된 후 이란 거주민의 대다수가 이 종파에 개종했던 것이다. 시아파는 예언자 모하마드가 생전에 그의 후계자로 사촌이며 사위인 제4대 할리파 알리(656~661 재위)를 임명했다고 믿는 데서 수니파 이슬람과 구분된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같은 코란을 따르므로 다같이 이슬람의 3대 근본교리 즉 유일신(Tawhid), 예언자적 지도(Nabuwah) 및 최후의 심판(Ma'ad)을 믿고 있다. 그러나 시아파는 여기에 추가해서 알라(Allah)의 정의로 우심('adl)과 종교적 권위(Imamate)를 믿는다. 종교적 권위라 함은 이맘(Imam)을 뜻하는데 알리를 포함하여 12명의 이맘이 존재한다고 본다. 최후의 제12대 이맘은 878년에 사라져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믿으며 최후의 심판날에 돌아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받드는 데서 수니파와 다르다.

종교의식의 관행인 기도, 단식, 순례, 헌금(Zakat) 및 聖戰(Jihad)의 참여 등에는 사소한 세부적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시아파는 수니파의 박해를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종교적 순교정신이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시아파는 조직이 수니파 보다 비교적 공고하다. 시아파는 인도, 유럽계의 이란계 인종 전부와 아제리인이 따르고 있으며, 오늘날도 이란국민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특성이 되고 있다. 수니파에는 쿠르드족, 발루치족 및 투르코만족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아랍인은 수니, 시아 및 기타 종파로 나뉘어져 있다.

다른 종교적 소수파는 그 수가 미미하고 최신의 통

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추종자 수는 알기가 힘들다. 1974년도의 추정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그리스도교도는 25만명, 네스토리아 그리스도교도 약 2만5천명,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는 약 5만명, 유대교도는 약 8만명, 조로아스터교도는 약 3만명, 바하이교도는 약 6만명이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들 종교적 소수파는 해외로 이주한 이가 많아 그 인구 구성비율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무슬림(시아 91% 수니 8%)이므로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이슬람의 영향이 깊게 미친 것은 당연하다. 일반대중들은 몰라(Mollah, 이슬람신학도, 말단성직자)와의 접촉에서, 상류층은 무즈타히드 Mujtahid, 이슬람성법학자) 및 아야톨라(Ayatollah 최고종교지도층)등과의 교류에서 종교적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더구나 1979년 이슬람혁명의 성공 이후 神政體制(Velayat-e Faqih)가 성립된 후 국가와 정부기구의 모든 요직은 성직자와 그 측근들의 독점물이 된 상황에서는 종교가 개인, 공동체 및 국가생활의 지도노선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실은 이란이 이슬람공화국 헌법 제5조, 10조 및 107조에 명기되어 있다. 즉 최고종교지도자(Marja'-e taqlid, 모방의 원천, 예로 호메이니)의 모범적 행위는 곧 그 추종자들이 모방해야 할 일상생활과 공공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또한 종교재단(Vaqf)을 설립하여 이슬람 성원, 학교, 병원 등을 세워서 자선 및 후생사업 등을 하고 있다. 몰라들은 막탐(Maktab)이란 학교를 세워서 어린이들에게 코란, 페르시아어 및 산수 등을 가르치거나 학비는 거의 무료나 다름이 없다. 이 막탐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신학교와 비슷한 마드라사(Madrasa)에서 학생들은 저명한 스승 아래서 코란해석, 이슬람성법 및 종교철학 등의 과목을 연구하지만 시험제도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학교에서는 소녀들은 수학할 수 없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스승 아래서 배울 수 있으며 강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분위기가 매우 자유롭다. 심지어 서구식 교육에서 흔히보는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 또는 벨의 멜로디는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전통적 이슬람 교육제도의 특징이다. 즉 이들은 신학도를 이슬람의 요새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올라마('Ulama' 이슬람 원로신학자) 없는 민중은 죽은 셈이며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올라

마는 역시 죽은 셈이고 더 나아가서 실행을 하더라도 독실성이 없으면 위험에 빠진다는 전제 아래서 성직자층은 민중의 모범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무슬림의 도덕적 원칙과 의무조항을 하나의 체계적 윤리(Akhlaq)로 통합시키려고 애써왔다. 이 윤리는 일종의 실천철학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윤리서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적과 실제행동 사이에는 차이도 있는 것이다. 즉 상식성과 편의성 상의 문제점인 것이다.

6. 실습과 사회구조

(1) 일반적 상황과 특성

비록 이란인의 절대다수가 이슬람화 되었다 하더라도 이슬람 이전의 관습이 이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점에서 이란 전통의 지속성이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이란 달력의 사용이다. 이란력은 예언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는 해를 원년으로 삼는 점에서는 이슬람력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란력은 양력이고 이슬람력은 음력인 것이다. 즉 이란력에서 우리는 역사의 지속성과 단절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이란력, 이슬람력 및 서양력을 함께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나, 주가 되는 것은 역시 이란력이다. 이란력에 따르면 서양력 3월 21일의 춘분은 이란의 설날(Nou ruz)이다. 비록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식의 신정체제가 확립된 후에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이란적, 조로아스터적 전통을 비이슬람적이라 보지 않고 13일간의 축제를 행하는 것이다.

이슬람력에는 일년이 352일이고 우리나라 음력의 윤달 같은 것이 없으므로 27년 또는 28년에 한번씩 시아파의 제3대 이맘인 후세인(Husain, 680년 죽음)이 순교한 제사날(이슬람력 1월 10일)과 동시에 맞아 떨어진다. 이 경우 순교를 애도하는 시아파의 울부짖음과 몸부림은 이란 설날의 축제로 그 애달픔의 정도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즉, 이슬람적인 것과 이란적인 것의 조화와 갈등은 지난 1,300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지만 지금부터는 조화의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이 나라와 그 주민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으로 그 거주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그 특색 또한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또 각 지역의 특색은 그 중심도시가 대표한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스파한 사람은 열심이고 지혜로워서 날카로운 사업가, 야즈드 사람은 꾸준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이며,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꾀꿀하여 군인과 상인을 많이 배출했고, 쿠르드족은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독립성이 강하여 과격한 전사인 반면에 쉬라그 사람은 그 천성이 정열적이어서 시인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란과 같은 사막, 반사막 또는 초원과 산악이 많은 나라에서는 지형과 물의 공급에 따라서 인구의 집중은 물론 취락형태와 집의 모양이 달라진다. 투르코만은 펠트(Felt)로 만든 둥근 집(Yurt), 박티야르족은 검은 천막(Tent), 발루치족은 버드나무 오두막에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족 단위로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거주지역이 다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주거리는 짧아지거나 또는 정착하게 되었다. 평지의 마을은 옛 전통에 따라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집들은 대체로 흙담으로 둘러 쌓여 있고 옥상은 평평하고 나무로 짜서 그 사이를 짚과 흙을 섞어 만든 덩어리로 베운 것이다. 대체로 마을 한가운데는 이슬람성원 건물이 있으며, 이곳은 학교로 이용된다. 가축은 집 밖에 둔다. 산악지역의 마을은 대체로 계곡의 비스듬한 언덕받이에 있으며 그 주위에 계단식의 밭이 있다. 이 밭에는 주로 밀, 옥수수 또는 자주개자리(alfalfa)가 재배되고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집들은 정방형이고 흙벽돌로 지었고 창문이 없다. 지붕은 평평하거나 양파(dom)형이다. 가축장은 보통 집 밑에 있다. 카스피아해안 지역의 집구조는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을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분산되어 있으며, 집들은 주로 2층 나무집인데 다른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흙간, 닭집 또는 누에집은 마당에 별채를 지어두고 있다.

도시는 음료수의 공급이 원활한 곳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산기슭의 가깝게 경사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란 고원은 대체로 해발 1,000m 이상이고 산은 2,000m 이상이기 때문에 겨울에 내린 눈이 쌓여 여름 내내 녹아서 식수가 되므로 도시는 산기슭에서 물공급량이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수리시설은 중도에 증발 또는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

하수(qanat)로 이용하고 있다. 도시의 전통적 구조는 이슬람식이어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정부청사, 상점거리 또는 시장(Bazaar) 및 거주지역 등이다. 시장은 취급상품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 있으며, 각 상점은 개개인의 소유여서 그 규모가 작은 편이고 시장거리는 협소하다. 현대도시에도 상거래는 주로 시장근처에 세워진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공중목욕탕은 도처에 흩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란인의 가옥구조는 침실을 합한 것 보다 거실이 더 큰 것이 특색인데 특히 도시의 상류층과 중산층의 가옥이 그렇다.

(2) 농촌과 도시생활

이란의 촌락에는 우리나라에 里長에 해당하는 카드쿠다(Kadkhuda, 우두머리)가 있다. 옛날에는 마을사람들이 선출했으나, 그 후 지주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지주들은 보통 마을의 전답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지주들은 1960년대에 시작된 백색혁명 전에는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또는 수백 개의 마을전답을 소유했다. 1937년 이후에는 각 지방총독이 이장을 임명했으며, 이슬람혁명 이후에도 관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카드쿠다는 촌락의 장로(Aisk safid, 흰수염)들의 도움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슬람혁명 이후에는 혁명수비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쉬트반(Dasht fan, 경비원)은 도둑을 지키고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水路를 감시하고 물을 배급하는 미랍(Miraf, 물관리인)이 있는데 그는 주로 다른 촌락과의 물소동 때문에 일어나는 분규해결에도 관여한다. 그러나 혁명 후에는 마을성원의 이맘(Imam 집단예배 인도자)도 그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혁명정부는 농업생산에 주력을 기울여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영농의 기계화와 개량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젊은이의 징집과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가 생산감소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농업생산은 다소 사정이 나은 편이다.

토지의 소유형태는 대략 4가지로 분류된다. 즉 자작농(Khur dehmali) 작은 토지의 소유자, 농업종사 인구의 1/6)의 농지, 성원농지(Vaqf), 국유지(Khaliseh) 및

사유지(Ardabi 또는 Amlak)등이다. 백색혁명과 이슬람혁명 후 사유지의 비율이 격감한 반면 국유지의 비율은 격증했으나 아직도 상당한 양의 토지는 지주의 수중에 있으며 또 성원소유지는 증가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농촌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이슬람혁명 후 4개월만에 이란정부는 지하데 사잔데기(Zihad-e Sazandegi 새건설) 운동을 일으켰다. 이 조직의 목적은 팔레비조 시대에 농민들에 가해진 착취로 피폐해진 농촌과 농민의 빈곤을 제거하고 혁명의 길로 이끄는 데 있었다. 그 후 이 운동을 도시에도 확대했다. 즉 우리나라의 새마을사업과 같은 류의 것이다. 그 주안점은 개량종의 도입과 영농의 기계화에 있었으나 교육의 보급을 위한 학교 및 병원건물의 신설과 수리, 도로의 신설과 포장, 수도 건설, 전선설치, 저수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슬람혁명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도서관, 도서관 건설, 강연회 개최 등도 도모하고 있다.

이란의 대도시로는 테헤란, 이스파한, 마샤드, 타브리즈 및 쉬라즈 등을 들 수 있다. 테헤란의 인구는 다른 개발도상국의 수도처럼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총인구 5천만 가운데 거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도시의 인구는 거의 백만에 육박하고 있다. 그외의 중소도시는 대체로 5만에서 30만 정도이지만 가장 이란적 특색을 많이 지니고 있다. 대도시의 중앙에는 그 지역의 통치자 또는 중앙정부의 총독이 거처한 성채와 군주둔지가 있고 그 옆에는 중앙성원건물과 시장(Bazaar)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좁은 길과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에는 대상(Caravan)들의 숙소가 있다.

이 도시의 거주민에는 공무원, 상인, 지주 및 이들의 하인계층과 세공인들이다. 세공인들은 왕실과 지방의 영주들의 수요에 맞추어 우아한 품목을 생산하고 그 외 일반인들의 일상필수품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각 도시의 특산품은 이란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때로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스파한, 콤(Qom), 카산 및 케르만은 좋은 양탄자(Carpet), 이스파한은 또 옥양목에 여러 색깔 목판화무늬를 찍은 칼람카르(Kalamkar), 콤은 또한 색유리, 타부리즈는 은세공품, 마샤드는 터어키옥(Turquoise),

아바데(Abadeh)는 순가락과 배나무상자 및 쉬라즈는 가구에 장식무늬를 새겨넣는 기술(Khatem Kari)로 유명하다. 이러한 도시의 전통적 멋은 1930년대부터 불어닥친 도시현대화 과정에서도 살아남아 있다. 특히 넓은 도로를 건설하여 현대식 건물의 상가가 줄을 이을 지라도 바자르(Bazaar, 시장)의 위력에는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매와 도매는 아직도 바자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각 구역에 산재해 있는 공중목욕탕은 촌락의 그것 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 건물이 대리석과 타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100년이 넘는 것도 많은데 그 대부분이 지상에서 10m 아래의 지하에 있다. 즉 지하수를 용이하게 탕내에 끌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냉방시설도 갖추어 있으며 이발소도 부설되어 있고 이발뿐만 아니라 안마도 해주는 경우가 보통이다. 또 그 휴게실은 일종의 사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3) 산업화과정과 사회구조의 변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란의 사회양상은 세단계 변화를 겪었다. 제1단계는 헌법혁명이 성공한 1906년에서 국왕 레자 샤가 양위한 1941년 까지이다. 이 기간에 이란 사람들은 스스로 이란은 1,000家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50가문 정도였다. 이들은 서로 끼리만 결혼할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지주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자기 소유지 근처의 도시에 살지 않고 테헤란에 거주했으며, 현지에는 대리인을 보내어 관리했다. 이 특권층은 당시 국회 의원의 1/3을 배출했고, 국무위원의 1/2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군의 고위장성들은 이 가문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서구세력의 침투와 더불어 사업에도 종사하게 되었으며, 또 유능한 인재를 발견하면 결혼을 통하여 자기 가문에 끌어 넣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 유학생들도 이 가문출신이었으며 공부기간이 끝난 이는 국가요직에 임용되었다. 이들은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교모임(Dowreh)을 각 분야별로 만들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불화관계를 해소하면서 또 이 가문 외에서 배출된 인재들과의 교분을 맺어 지배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는 중산계층이 급속히 형성되었다. 기업가, 의사, 교육자, 작가, 상점인, 은행

종사자, 건축기사 등인데 이들은 주로 도회지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은 서구 지향적이었다. 그들의 애국심은 전통윤리 도덕에 비평적이었고 지배층 가문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제2단계는 1941년부터 1979년초의 이슬람혁명의 성공까지로 볼 수 있다. 레자샤의 퇴위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자유로와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정치사상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및 전통적 이슬람사상도 그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이 경향은 1953년의 쿠데타로 민족주의자인 모사데그(Mossadeq) 수상정권이 무너질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에 지배층 가문의 지위는 민족주의자가 왕당파로 갈라져서 크게 흔들렸고, 결국 왕당파의 승리와 함께 매우 위축되었다. 더구나 그 이후 왕권의 강화는 국내에 미국을 비롯한 외세를 더욱 노골적으로 불러 들였으며, 또 지주층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자작농의 생활향상을 도모했다. 그러나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분배함으로써 자작농의 지지도 얻지 못했고 또 이슬람성원 소유지도 그 대상이 되었기에 지주층과 성직자층의 불만을 유발시켰다. 더구나 외국차관과 석유세입으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거 투자하고 이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의 농업노동자를 도시로 몰아냄으로써 도시의 빈민가는 급격히 팽창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전반기의 약 15년 동안에 이란의 대도시 대 농촌간의 인구비율은 30 대 70에서 50 대 50으로 변한 통계지수만 보아도 능히 이 대격변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내에서 나타난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그에 따른 불로소득자의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농업노동자의 도시 이주는 국가 공권력으로 강요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왕권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었다. 또한 국가공권력의 강화는 비밀경찰(Savak)과 공무원의 증원으로 달성되었으므로 국가의 예산은 생산분야에 못지않게 관료의 급료와 그 활동비에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비대한 관료체제는 부패를 낳게 되어 결국 성원조직을 중심으로 성직자들이 이끄는 민중봉기에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제3단계는 이슬람혁명이 성공한 197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10년 기간이다. 팔레비 왕조의 전복기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등 잡다한 세력이 참여했다. 그러나 그 후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혁명 주체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자 다른 세력들은 불만을 품게되어 1982년까지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암살, 테러행위가 부단히 일어났다. 더구나 1980년 9월에 일어난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8년 7월까지 거의 만 8년이나 끌었으므로 이슬람 혁명 정부는 물론 이란 자체가 내우외환을 겪은 격이었다. 혁명의 수호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리게 된 결과 수백만의 젊은이가 전선으로 나가게 되었고 또 그에 따른 군수품의 생산과 수송 등은 사회구조의 전통적 측면 즉 조용한 변화를 송두리째 뒤엎어 놓았다. 이제 사회 내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폭격과 포격으로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생산 활동이 크게 마비되어 실업률은 20%를 넘게 되었고 물자품귀와 인플레이션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50만 명의 전사자와 200만 이상의 상이용사 및 그 유가족들의 생활대책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전쟁이 종결될지 일년여 채 되지않아 그 사회적 모순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낙관적이기 보다 비관적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금년 6월초 호메이니의 사망과 또 그에 의해 종교적 후계자로 지명된 아야톨라 몬타제리(Montazeri)를 사망직전에 스스로 물러앉게 한 사실 및 현 대통령 하메네이를 그 후계자로 종교전문가 의회(上院格)가 즉시 선출했지만, 아직 그 종교적 권위가 미흡한 점을 미루어 보면 현 이슬람 신정체제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신되며 政局의 불안 또한 높은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카자르朝 말기에 농친 특권(사법부와 교육 부문을) 이슬람혁명 이후 100년만에 다시 찾은 셈이고 그들의 조직이 마을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는 농민과 도시의 빈민들은 아직도 그 신앙심이 독실한 점을 감안하면 아주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또 호메이니를 비롯한 고위지도자들은 세속적인 富의 축재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부패했다는 비난은 아직 받지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없이는 이미 다양화와 활성화가 동시에 급격히 이루어진 이란 사회가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 맺는말

지역학에서 흔히 常數로 보는 국토, 민족, 종교 및 언어를 이란에 적용하여 볼 때 앞으로 이 분야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변경은 거의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주체인 국민과 그들의 언어는 이란의 경우 多人種 즉, 이란, 터키, 아랍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약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특히 종교의 경우에는 복잡한 양상이 보인다. 비록 시아이슬람이라는 범주안에 대부분의 이란국민이 그 연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영광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페르시아제국의 전통과 이슬람화 이후의 이슬람적 전통이 완전히

조화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것이다. 시아이슬람에서 이 두 전통의 조화과정은 아직 진행중인 것이어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호메이니 체제는 극단적 이슬람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대외적 대내적으로 국민적 금지라는 페르시아제국의 전통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단절성과 지속성의 이란역사는 아직 마무리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페르시아적 금지와 이슬람적 신앙이 이란국민의 의식구조에서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마찰은 국가의 분열을 이끌만치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권차원의 변화는 충분히 가져 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강력히 작용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계속>

□ 산유국단신 □

이란 新정부의 석유정책방향

'88년 8월의 이란-이라크전 종전, 금년 6월의 호메이니 사망 등을 계기로 이란은 국민의식과 정치적 측면에서부터 새로운 변혁을 겪고 있다. 호메이니의 사망 이후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라프산자니의 신정부는 온건실리노선에서 경제복구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이란의 최우선 경제부흥 프로젝트는 ①석유생산시설을 현재의 300만B/D에서 400만B/D로 확대, ②Kharg 수출기지의 복구, ③83만B/D의 정제능력을 4년 이내에 150만B/D까지 확대, ④가스생산 및 수송시설의 건립 등이다. 이에 필요한 총소요자금은 3,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최대의 수입원인 석유수출로 복구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금년 상반기 석유생산실적은 284만B/D로, 내수 80만B/D를

감안하면 수출가능량은 200만B/D로서 금년도 이란의 석유수출수입은 120~13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규모는 복구계획의 정부부문 투자액에 절대적으로 모자랄 뿐만 아니라, 수입의 1/3만 투입되므로 그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란의 석유증산도 향후 수년간은 기대할 수 없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까지의 非東非西(No East, No West) 정책을 기본으로 한 자립경제체제를 수정하여 점진적인 국제협력과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결부된 이란의 향후 석유정책은 ①생산능력확충의 제약으로 인해 OPEC의 쿼터확대에는 반대, ②OPEC정책결정과정에서는 과거의 강경자세를 지양, 유화적태도를 견지 ③재원조달의 일환으로 바터거래의 증가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